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매헌梅軒 선생 포증褒贈과 조선후기 경주지역 사림활동



권오선
작운공사님을 저자, 칼럼니스트

조선왕조는 16세기 후반부터 학덕(學德)을 겸비한 사림(士林, 유림儒林)이 전국에 산재하게 됐다. 특히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물산이 풍부했던 영남이 그러했다. 각 고을의 향교와 서원, 그리고 집성촌의 문중을 중심으로 사림집단을 형성했다.

조선을 초토화시킨 임진왜란 때는 의병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정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굳혔다. 사림이 올린 연명 유소(儒疏)는 제야세력을 대표하는 언론 역할로 보일 만큼 강력한 힘을 지녔다. 영남유소(嶺南儒疏)가 가장 유명했다.

18세기 말 사도세자의 신원을 위해 영남 유생 만여명이 올린 두루마리 만인소(萬人疏)로 인해 정조가 벽파(僻派)를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처럼 향촌사회를 장악했던 영남의 사림들이 관(官)에 상서(上書) 즉 향장(鄉狀)을 통해 유림의 뜻을 관철시켜 나갔다.

매헌선생충효장시 향도장조(梅軒先生忠孝表彰時 鄉道狀草, 경주시립도서관 보관)은 한 시대의 역사와 유림들의 빼어난 문장들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다.

향도장조(鄉道狀草에 기록된 의병장 권사민의 공적 사립 1395명이 수결

성주 유학 이사옥(星州 幼學 李師助), 대구유학 채치용(大邱幼學 蔡致龍), 현풍유학 엄우광(玄風幼學 嚴友光), 경주진사 한문건, 최남복(慶州進士 韓文健, 崔南復), 경주정인 최두석(慶州正言 崔斗錫), 후손 권칭형, 권옥형, 권학인, 권학원(後孫 權稱衡, 權玉衡, 權學仁, 權學元) 등 1,129명과 경주향교 43명, 서옥서원 61명, 옥산서원 37명, 구강서원 25명, 동강서원 36명, 용산서원 50명, 인산서원 등 7개 서원에서 266명 등 1395명이 수결(手決)을 한 의병장 권사민의 공적을 역사 한편이다.

매헌공 권사민은 1557년(가정嘉靖 정사丁巳: 명종 12) 정월正月 20일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의 문인이자 예조 병조 정랑, 군수를 지낸 귀봉공(龜峰公) 권덕린(權德麟, 1553 명종 8년 대과급제)과 숙인(淑人) 하양하씨(河陽許氏, 참봉 허정許靖의 女)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천자(天資)가 특출하고 총명하기가 뛰어나 6~7세 때 이미 음률의 고저(高低)와 자연의 통해(通解)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학문 진척도를 옆에서 지켜보신 부친 귀봉공께서 크게 칭찬하기를 “이와같은 인제가 애석하게도 늦게 태어나 나의 선생(이언적)의 교양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말했다.

16~17세에 이르러 경서(經書) 자사(子史) 등 암송하지 않은 서책이 없었고 특히 주역과 논어, 용학(儒學)을 좋아했으며 책을 읽을 때 해석되지 않은 곳은 스스로 석의(釋義)하고 현토(懸吐 문장 끝에 토를 달다)하여 분명하게 나타냈고 옆자리에는 효제충신 4자에 관련된 책을 두고 늘 섬김에 대한 반성을 했다.

향당(鄉堂)들도 칭탄(稱歎)하기를 “권매헌(權梅軒)의 배운 바는 스스로 원원이 있고 어버이 섬기는 것이 소학의 가르침과 같이하고 상종(喪中)의 봉선지례(奉先之禮)는 모두 이화재(李晦齋)의 평일 소행을 좇는다.”라고 했다. 경주부북(慶州府北) 조감리(草甘里)에서 현자의 서(書)를 통독하고 음양지학(陰陽之學)을 검구

(兼究: 훈도와 학문연구)하고 있을 즈음 이웃 고을 장보(章浦: 글 공부 친구나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왕래, 문난자(問難者: 어려운 글을 몰으러 온 선비)가 기천여인(幾千餘人)이나 되었다. 7읍에서 유학을 훈도하고 사부자제(士夫子弟)나 평민 중에서도 가르칠만한 소년들에게 동강하술(冬講夏術: 겨울 여름 공부)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 무렵 임진왜란이 일어나 열읍광풍(列邑望風)이 불자 매헌공은 편모(編母, 숙인淑人 하양하씨河陽許氏 /귀봉공은 1573 선조 6년 서세逝世)를 경주부남(慶州府南) 목릉(杜陵) 옥수동으로 피난시켰다.

1592년(선조 25) 4월 13일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이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삼로(三路)로 나누어 복진을 계속했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지휘하는 22,800명의 좌로군이 7월 만에 경주성을 무혈 점령한 왜군은 조령을 넘어 탄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을 격파, 5월 2일에는 서울을 점령했다. 전라도와 평안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토가 왜군이 지배, 약탈과 만행으로 백성들은 최악의 고조를 겪어야 했으며 특히 가장 먼저 침략, 왜군의 보급통로가 된 경상좌도의 폐쇄가 극심했었다. 왜군이 침략한 다음 달 5월부터 경상도 지역부터 의병이 크게 일어났다.

경주부는 왜적의 초전지가 되어서 피해가 더 극심했었는데 이 시기 매헌공 권사민도 충군순국(忠君殉國)의 결의로 창의, 다음과 같은 전공을 세웠다. 매헌공의 첫 전투는 임란이 일어났던 다음 달인 5월 초부터 준비, 6월 형산강을 건너 모전산(茅田山,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학도병충훈탑)에서 벌어졌다. 모전산 정상에서 형강을 통해 물자를 나르는 왜군들에게 돌을 굴리고 화살을 날려 초멸(剿滅)시켰으며 왜군이 영일만 쪽으로 달아나자 주민들은 전투현장에서 군수물자를 건져갖고도 기록됐다. 모전산 전투를 끝내고 옥수동으로 돌아올 때도 형산강의 북쪽과 월성(月城)의 남쪽 문전에서, 모량 동쪽에서도 전투를 벌여 거듭 승전을 거두었다.

매헌공은 모전산 전투에 앞서 편모를 모신 옥수동에서 피난 중인 8~9명과 상의, 창의를 결심하니 며칠 사이에 문도와 제자 200~300명이 모였다고 기록됐다. 그 즉시 숙부인(淑夫人, 월성이 씨月城李氏 부참봉父參奉 승민承閑)에게 어머니의 봉양을 당부하고 길을 떠났다. 초행노숙(草行路術)하면서 안강현 두소동에 이르렀을 때는 사방에 인적이 끊겼으며 선묘(先墓) 알현 즉시 지형이 가장 낯가로운 자옥산(紫玉山) 중봉(中峯)에 올랐다. 여기서 피난 나온 참봉 김예신(金禮愼)을 만나 소모책(召募策, 의병 모집 계획)을 논의, 영남의 중간에 위치한 공산(公山) 약암(躍巖)을 진영으로 정하고 10여 명씩 두 진으로 나누어 자옥산을 떠나 이동에 들어갔다.

1593년(선조 26, 계사癸巳) 3월에 공산 약암에 도착한 매헌공은 그해 7월까지 무기를 확보하고 경주, 흥해, 연일, 영진, 영해, 자인에서 200여 명이 소모(召募, 의병모집)에 들어갔는데 이들 모두 왕사(王事)를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한 민초들이었다. 의병 숫자가 불어난 만큼 가장 시급한 것이 군량이었다. 살림이 넉넉했던 참봉 김예신공이 자옥산에 숨겨뒀던 100여 석과 두류동에 둔 서재곡(書齋穀) 100여석을 차례로 옮겨오니 진중에 긴 어둠이 바로 걷혔다.

진중의 의병들은 수시로 조령을 넘는 왜병에게 화살을 날리고 지형지세를 이용, 치고빠지는 게릴라전을 통해 승기를 놓치는 일 없었다. 그해 이런 전투가 10여 차례나 됐다. 하루는 의병 100여 명을 산곡(山谷)에 숨겨두고 적을 끌어들이 작전거리 총돌시키는 작전에도 돌 또는 나무토막을 굴리고 화살을 날려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했다. 가을건기가 시작된 어느 날 농민을 가장한 의병들이 300~400명이나 되는 왜병을 소공암(小孔巖)으로 유인, 술을 마시게 하고 급습, 100여급을 참하였다. 매헌 의병진에서 공산에서 진을 친 시기, 목을 벤 왜병은 승전에 비해 몇 백 명이나 되는지 기록이 없다. 이는 매헌공이 전후 농공행사를 위해 왜병수급을 모은 것과 달리 “나의 창의는 백성과 왕사(王事)를 위할 뿐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는 창의 신념 때문이었다.

1594년(갑오甲午 선조 27) 봄부터는 군진(軍陣)을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옮겨 망우당 객재우 장군과 함께 한다. 약암진(躍巖陣)에서 4~5일간 밤길을 걸어 광장군 본진이 있는 정암진(鼎巖津) 부곡(郞曲, 천민집단부락)에 일진을 펼쳤는데 엄숙하고 의기가 하늘을 찌렀다.

광장군이 칭찬하기를 “권의사(權義士)가 오니 모든 적들이 호구(虎口)에 들어간 것과 같다. 이것은 오직 분의응모(奮義應募, 의로운 분기)로 모인 진실한 의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즉시 삼가(三嘉)의 권양(權養), 의령의 심대생(沈大生/承)과 함께 좌우익이 되어 왜병과 수시로 접전을 벌여 승첩을 거두었다.

그해 가을 광장군으로부터 조선의 남부적인 화왕산성 산성 수비 권유를 받고 진을 옮겼다. 명(明) 군과 대치한 적세(賊勢)가 막강한데 여기서 흠어져 있기보다는 창녕현 동쪽 10리에 위치한 화왕산성에서 진을 치면 장차 명(明)군이 돌아간 후에 있을 왜적의 재침범을 쉽게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망우당의 작전통이었던 매헌공은 고성(孤城, 적에게 고립된 성)을 지키지 못하면 의병들이 잡히지 못할 큰 변을 당하게 되니 설을 산처럼 쌓았다가 성(城)과 함께 불에 타 죽기로 결연한 모습을 보이니 성 앞까지 온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군이 발길을 돌렸다.

망우당실기 한 줄을 그대로 옮기면 “권공의 충의는 피보다 높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또한 같으며 내는 작전보다 새롭다”고 진중 회의 때마다 사례를 들어 격찬했었다고 기록됐다. 화왕산성에 살았던 백성들은 마치 아버기를 보는 것같이 하었다고 덧붙혔다. 1597년(정유丁酉, 선조 30) 8월 18일 어머니 숙인 하양하씨의 부음을 듣고 7년간을 함께했던 의사들과 별리, 출성(出城)했다.

임란이 끝나고 조선은 선무원훈공신, 선무원충공신 9,060명으로 나누어 포상했다. 임란공신록에 책록됐다. 이때도 나의 출신은 나라로부터 포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가족에게 밝힌 매헌공은 선조 임금에 내린 연양현감직을 던져버리고 옥수동에 서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고 시와 글을 짓는 데만 시간을 썼다.

외아들 응립(應立) 공(1613년 계축 광해5, 증광시 3등)의 생원진사 임격연(入格宴)에 참석하신 권태일(權泰一) 경주부윤이 “공은 연양현감을 제수받고도 불취(不就)하고 아들의 출사도 원치 않는 걸 보니 전형적인 산림 처사로서 재지사족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고 했을 만큼 나라의 포상이나 벼슬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아들의 대과까지 만류한 재지사족이어서 이런 가풍이 200년을 흐르게 했다.

매헌공 사적기事蹟記 편찬 및 7년 포증褒贈 활동

매헌공의 포증褒贈문제는 200년이 흘러 영조 46년(1770) 4월 공의 현손(玄孫형, 청형稱衡 등 9형제)과 7세 학인學仁에 의해 후손집에 흠여져 보관 중이었던 사적을 모아 진사 유의건(柳宜健, 1687~1760 옥산서원장)에게 의뢰, 사적기를 편찬했다. 이 사적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경주사림의 포증 활동이 시작됐다.

① 1775년(영조 51) 9월 초 절곡의 생원 송학염(宋學簾) 등이 공적을 밝히고 지금껏 포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의 처사를 지적하는 유소(儒疏)를 지어 의정부에 제출했다.

②9월 말 성주(星州) 유학(幼學) 이사옥(李師助) 등이 낸 소(疎)는 1차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써졌다. “저희들이 생각건대 적 1명을 목베어도 상을 내리지 않은 것이 없고 일전(一戰)을 한 노고에도 상을 내리지 않음이 없는데 선생은 왜노(倭奴)의 목베자가 얼마이며 전투 또한 해아리지 못하는데 유독 그 대열에서 빠졌어도 사후에도 포증이 아직껏 기척이 없으니 이것은 진실로 조정의 큰 잘못이라고” 썼다.

③경주유림 40명을 비롯 경상도 사림 458명이 연명으로 조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포증을 요구했다. 특히 1775년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대고, 현풍, 성주, 칠곡을 순시하는 순찰사에게 매헌공 권사민 선생의 포증을 무려 4차례나 거듭 요구였지만 답은 회의적이었다.

④다행히 영남에 내려온 수의(繡衣, 지방 민정을 살피러 나온 재상) 유의양(柳義養)에게 엄우광(嚴友光) 등이 제출한 상서(上書)가 받아들여져 문적(文蹟)들을 가져오라는 비답이 내려졌으나 1776년 3월 영조의 승하(昇遐)로 또다시 무산(霧散, 안개가 걷히듯 사라졌다)됐다.

⑤울산 경주사림의 거듭된 연명 상서에도 답이 없었다.

영조에서 정조 시대로 바뀐 시기 후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5백 명이 넘는 영남사림, 재지사족의 포증요구에도 비답을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헌공의 7世손(휘諱 학인學仁 1744~84)은 정조의 즉위년인 1776년 8월 “포공장절褒功獎節은 조가(朝家)의 성전(盛典)이요 존유중도(尊偉重道)는 신화(新化)의 급무”란 글로 포증 경위와 사적을 담은 두루마리 소를 정조에게 보냈으나 소식이 없자 다음 해 7월 대종백(大宗伯, 예조판서)에게 상서, 수의(繡衣) 유의양(柳義養)이 “마땅히 분간하여 생각 하겠다”는 답이 있었을 뿐 이 상서 역시 더는 나가지 못했다.

⑥정조 3년 5월 수의(繡衣) 황승원(黃昇源)이 영남에 내려왔을 땐 서사염(徐師簾)을 비롯 경주진사(慶州進士) 남장만(南丈萬), 생원 황곡(黃斛) 임일빈(任一鎭), 유학(幼學) 유찬주(柳燦周), 김시동, 최주민(崔柱受), 손용구(孫用力) 등과 울산 유학(幼學) 서사락(徐師洛), 이도민(李道民), 최종립(崔宗立), 이주번(李周燮), 서극원(徐克元), 이낙민(李樂民) 97명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인 상서를 제출했다.

“소생들이 기(記)에서 듣기를 조선(祖先)의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은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며 아름다움이 없는데 칭찬한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무릇 자손이 조선(祖先)을 위하여 비록 사직으로도 남에게 거짓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칭찬하는 것은 안되는 일일진대 하물며 각하(閣下)앞에서 이겠습니까” 이때도 공의(公議)를 박제(博採)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말뿐이었다.

모암공慕庵公, 정조4년 격쟁으로 당상관 증직을 받아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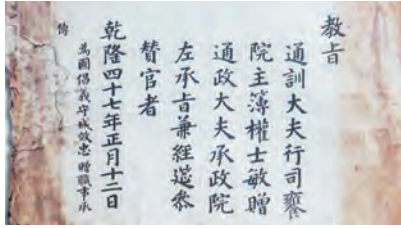
1780년(정조 4) 1월에 들어서도 5세손 청형(稱衡, 필자의 7대조)이 경주부윤 심이치(沈履之)에게, 같은 달 경주 생원 황곡(黃斛) 임일빈(任一鎭), 진사 남장만(南丈萬) 등 49명이 경주부윤에게, 그리고 유학(幼學) 최명룡(崔命龍) 등 54명이 순상(巡相) 조시준(趙時俊)에게 상서를 올렸으나 역시 비답이 없었다.

영남사림, 재지사족 1,395명이 매헌공의 임란 공적을 증명하고 5백 명이 넘는 사림의 포증 요구에도 비답을 받지 못한다 억울한 분을 참지 못한 공의 7세손 학인(學仁, 1744~84)이 상경, 정조 4년 윤(閏) 5월 10일 궁성(宮城, 동교행행시東郊幸行時) 밖으로 행차한 어가를 격쟁으로 가로막고 직고(直告)를 했다.

직고 상서는 바로 예조로 보내졌으나 4개월을 기다려도 회답이 없자 청형(稱衡), 옥형(玉衡), 정익(正益), 성운(聖運), 성적(聖黜), 학범(學範) 등이 나서 바뀐 경부부윤 이진익(李鎭翼)에게 포증을 다시 요구했다. 부윤은 즉시 “사림이 정문(呈文)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 마땅히 상량(商量), 전보(轉報)처리하겠다”고 했다.

그해 10월 초 9일 예조에서 모암공의 직고에 답으로 “전사(前事)는 망우당일기에서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가 되고 믿을 수 있는데 아직도 포증(褒贈)의 온전을 받지 못한 것은 유사(有司)의 책임이니 이 뒤에 마땅히 사적(事蹟)을 참고하여 품처(稟處, 내린다) 하리라”고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러 1782년(정조 6) 정월 12일 어전회의에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 1728~1791)의 주청(奏請)으로 포증이 결정됐다. 서명선(徐命善)은 정조에게 권사민의 실적이 명확한 근거가 있고 도신(道臣, 경상감사)의 사계(査啓)나 수의(繡衣)의 포주(褒奏, 보고의 높이말)가 역시 같으니 당상관(堂上官)으로 증직(贈職)하여 충성을 장려하는 것이 옳리라고 하였으며 정조 임금도 그 자리에서 옹호했다. 그날로 임란 의병장이자 대학인(大學人) 권사민을 “당상관 좌승지 겸 겸경연참찬관”으로 증직 한다는 교지가 내려졌다. 배위(配位) 월성이씨(月城李氏)에게도 숙부인의 교지가 같이 내려졌다. 영조 51년(1775) 9월에 시작, 정조 6년(1782)에 포증이 이루어졌으니 무려 7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선조의 신원에 일생을 걸었던 모암공 등 후손들의 승조정신이 승리했다. 후손들은 모암공이 가슴에 품고 온 두 장의 교지 가운데 한 장은 경주부 남산 산록에 써진 매헌선조의 묘소 가장자리에서 분향(焚香, 불에 태움) 고유(告由)하고 다른 한 장은 옥연서당에서 보관하다 지난 2012년 11월 19일부터 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했다.



(자료출처: 김갑주의 조선후기 경주지역의 사림활동, 매헌실기梅軒實記, 경주향교정조慶州鄉道狀草, 동경시東京志, 조선왕조실록, 일성록日省錄, 망우당실기望雲堂實記, 이수건의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행주서원(기공사紀功祠) 춘향제 봉행



권오달 편집위원, 권병돈 상임위원, 권순호 전 매헌공 증중 회장, 권경택 원장, 권태환 중한관, 권운주 매헌공 증중 고문, 권오돈 추밀공파총회 회장, 권경일 석주공 증중 회장, 권행만 편집국장(왼쪽부터)

행주서원(원장 권경택) 춘향제가 4월 12일(음 3.15) 11시에 초헌관 김용규 교양문화원장, 아현관 이창립 원당농협조합장, 종헌관에는 권태환 안동 권씨문중 대표, 선호승 보성선씨문중 대표, 변양식 황주변씨문중 대표, 이종구 전주이씨문중 대표, 정종휘 압해정씨문중 대표, 박영경 뇌묵당 대종사 고양문화 대표를 헌관으로, 대축 이남무 교양향교 고문, 집례 이현구 행주서원 부원장, 해설 권은경 예절강사 등으로 분방하여 헌작했다. 뇌묵당 위패에는 스님들이 좋아하는 녹자를 헌차했다.

행주서원에는 권율 도원수를 비롯하여 부원수 선거이, 장의공 조경, 망암공 변이중, 병사공 이빈, 병사공 정걸, 뇌묵당 대선사 등 여섯 장수가 배향되어 있어 해마다 각 문중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이

번에는 풍양조씨문중에서 불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과 권운주 매헌공증중 고문, 권병돈 정강공증중 회장, 권병돈 대종회 상임위원, 권경일 석주공증중 회장, 권순호 전 매헌공증중 회장, 권오달 편집위원, 정재채 교향향교 전교, 이종원 유도회 회장, 박효순 용강서원 원장, 변은섭 봉암서원 원장, 선호승 원인 유도회장, 한영에 여성유도회장, 강홍장 전 교양향교 전교, 선호식 매화회장중 이사, 광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이흥연 고양시 문화예술과장, 최재희 고양시 문화체육무팀장, 고부미 고양시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택 행주서원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일기에 보에는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참재자 여러

분 덕분에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경택 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중이 거의 다 참석했다. 매년 모든 문중이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자리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지난 3월에는 권율 도원수 국가표준영정을 행주서원에 봉안했다. 안동권씨 대종회와 고양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 신 덕분이다. 또한 6장수를 권율 도원수와 함께 종창사에 배향하면 어떨까 구상 중이고, 서원 옆 100여 평의 행주서원지에 행주서원 교육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날 장소에서 온 변은섭 봉암서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행주서원 춘향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변이중 장군 13대 후손으로 장소에서 봉암서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8년부터 행주대첩의 승리를 주도했던 변이중 화차를 420년 만에 복원하여 홍보하기 위해 전시관 설계를 마쳤다. 건축비는 50억 규모인데 20억을 일단 확보한 상태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주산성은 고양의 자랑이자 고양시민의 자존심이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특히 안동권씨 문중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행주서원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왜적을 물리쳐 풍전동엽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권율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842년(헌종8)에 건립된 서원이다. 헌종은 고양 서삼릉에 행차할 때마다 권율 장군의 제향을 지낼 건물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왕명을 내려 행주대첩이 일어났던 산성의 아래쪽 한강가에 사당을 짓게 하고 기공사(紀功祠)라 하였다.

권행만 편집국장

안동권씨 상주종친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안동권씨 상주종친회(회장 권중희)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월 28일 10시 30분 상주명실 삼강한우타운에서 3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임 회장에는 권용배 회장이 선출되었다. 권용배 신임 회장은 종친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종친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남자들만 주로 참여했었는데 앞으로는 안동권문의 딸 여성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젊은 권병진(여)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딸 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모두 안동권씨 회원이니 지역



에 거주하는 종친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용배 신임 회장은 부회장에 영환, 태형, 오용, 명진(여)씨를 선임했다. 권도희 사무국장

안동권씨 추밀공파 평후공종회 운영위원회 개회

안동권씨 추밀공파 평후공종회(원주, 회장 권병규) 운영위원회가 2025년 3월 25일 원주시 단구로 354-3. 평화빌딩 한우한마당에서 원주 19명, 강릉 11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용덕 총무의 사회에 따라 평후공 현조님에 대한 망배, 상음례, 12대 임원 권오열 회장, 권학길 총무에 공로금 지급, 13대 신임 임원진에 추대장 및 선임장 수여, 회장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병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명문가의 자손으로 긍지를 갖고 멀리 강릉서 오신 종원님께 감사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정강공의 장손이며 공경공 휘 화의 맏아들인 권웅(17세, 평창공)의 추향제 봉행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권웅은 안동권문의 뿌리



인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은 선조로서 공적을 기리고자 추향제를 봉행하자는 안으로 결정하였다.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식사와 주류를 결들인 화합의 장이 되어 종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권용덕 사무국장